



〈류현진·김광현·양현종〉

“‘류·김·양’ 계보 잇겠다” 원손 영건 삼총사 도전

- 1 재활 구창모 “팬들 기대 잘 알고 있다”
- 2 기록 없는 최재홍, 올해도 활약 낙관적
- 3 올시즌 역대 역봉 이승호 “책임감 크다”

국가대표 좌완 원투펀치가 차례로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지난해 김광현(33·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에 이어 올 시즌을 앞두고 양현종(33·텍사스 레인저스)도 메이저리그(ML) 팀과 계약에 성공했다. 스타가 떠난 자리는 새로운 스타 탄생의 요람이 된다. “좌완 계보를 잇겠다”는 젊은 투수들의 각오에 기대를 걸 만한 이유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KBO리그 통산 승수 상위 3명은 모두 좌완의 차지였다. 양현종(152경기 74승), 유희관(147경기 65승), 김광현(113경기 53승)이다. 이 중 유희관은 지난 시즌 종료 후 프리에이전트(Free Agent) 자격을 얻었지만 아직 동지를 찾지 못했다. 김광현은 2020년, 양현종은 2021년 ML 도전에 나섰다.

2006년 놀라운 모습으로 데뷔한 류현진(토론토 블루제이스)을 시작으로 한국야구의 물결은 원손투수들이 이끌 어왔다. ‘류김양’ 트리오가 나란히 국가대표팀 유니폼을 입고 활약한 적은 없지만, 시기를 나뉘며 한국야구의 에이스 역할을 해낸 것도 이들이다. 그들 모두가 떠난 만큼 한국야구는 새로운 에이스에 목마를 수밖에 없다.

그 배턴을 이을 ‘영건’ 선두주자로는 구창모(24·NC 다이노스)가 꼽힌다. 지난해 부상으로 반쪽 시즌을 보내긴 했지만 전반기 13경기에서 9승무패, 평균자책점(ERA) 1.55로 압도적 퍼포먼스를 펼쳤다. 올해는 스프링캠프 합류 대신 재활조에서 골밀도를 높이고 있다. 다소 늦게 출발하더라도 완주가 목표다. NC의 선수관리 시스템을 살펴봤을 때 합류만 한다면 다시 날카로운 투구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토종 ERA 1위 최재홍(26·삼성 라이온즈)도 기대주다. 최재홍은 지난해 26경기에서 11승6패, ERA 3.58로 무너져가던 삼성 마운드의 기둥 역할을 해냈다. 풀타임 첫해를 보냈지만 기대이상이라는 평가다. 지난해에도 기록이 적다는 점이 최대 장점으로 꼽혔던 만큼 올해 활약도 충분히 기대할 만하다.

이승호(22·키움 히어로즈)도 유력 후보다. 이승호는 2019년 23경기에서 8승5패, ERA 4.48로 주목받았으나 지난해 24경기에서 6승6패에 그쳤다. 그럼에도 키움은 높은 기대치를 반영하며 올 시즌 역대 역봉(1억 원)을 안겼다. 이승호도 “책임감이 커진다”며 이를 악물었다.

팬들은 이들에게 포스트 류현진·김광현·양현종을 기대한다. 스프링캠프 초반 구창모는 “이러한 기대는 팬들이 그만큼 관심을 갖는다는 의미”라며 “잘 준비해서 좌완 계보를 잇겠다”고 다짐했다. 평소 롤 모델로 양현종을 꼽아온 그는 “새해를 맞이해 연락을 드렸다. 아프지 말고 준비 잘하라고 조언해주셨다”는 에피소드를 소개하기도 했다. 직접적, 간접적으로 한국야구는 ‘류김양’ 트리오의 자산을 누리고 있다. 이제 그 다음 세대가 지지개를 켜 차례다.

최익래 기자



최익래 기자의 ‘캠프에서 만난 사람’ | ‘의욕 활활’ LG 새 외인 수아레즈

적응력 탁월한 ‘파워피처’…외모까지 A+

캠프 첫날 25구 투구 놀라운 페이스
“격리때도 꾸준히 웨이트트레이닝”
“볼넷 매우 싫어해” 제구력 자신감
류 감독 “잘 생겨서 영입했지” 웃음



“LG 파이팅!” 2021시즌 LG 외인 원투펀치 앤드류 수아레즈(왼쪽)와 케이스 켈리가 14일 이전 LG챔피언스파크에서 카메라를 향해 환한 표정을 짓고 있다. 김민성 기자

KBO리그 외국인선수들의 기량은 어느 정도 상향 평준화돼있다. 그 능력을 그라운드 위에서 얼마나 뽐내느냐가 관건이다. 사령탑과 선배 외인 모두 ‘열린 마음’을 적응 1순위 열쇠로 꼽았다. 이 기준에서 보자면 앤드류 수아레즈(29·LG 트윈스)의 첫인상은 합격점 그 이상이다.

LG 새 외국인투수 수아레즈는 13일부터 이전 LG챔피언스파크의 스프링캠프에 합류했다. 수아레즈는 첫날부터 곧장 볼펜피칭을 소화했다. 당초 스케줄은 간단한 훈련이었으나, 본인이 자청해 25구를 던졌다. 지난달 30일 입국해 2주간 자가격리를 거친 직후였음을 고려하면 놀라운 페이스다.

류지현 감독은 14일 취재진과 만나 “첫 시즌이라 의욕이 불타오르지 않겠나. ‘급하게 생각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오히려 가라앉혔다”며 “수아레즈의 볼펜피칭은 기대대로 좋더라. 인품 자체가 워낙 성실한 스타일”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미국 마이애미 집에서 이미 4차례



LG 새 외국인투수 앤드류 수아레즈(앞)가 14일 이전 LG챔피언스파크에서 수비훈련을 하고 있다. 뒤에서 수아레즈를 바라보는 동료 투수들의 환한 미소가 눈에 띈다. 수아레즈는 캠프 합류와 동시에 놀라운 적응력을 보이고 있다. 이천 | 김민성 기자 marineboy@donga.com

볼펜피칭을 소화한 상태였다. 격리를 거쳤음에도 이전에서 몸을 만든 선수들보다 페이스가 더 빨랐다. 그런 부분은 감독으로서 고마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수아레즈는 “비시즌 내내 준비를 열심히 해 볼펜피칭을 할 컨디션은 됐다. 격리 중에도 숙소에서 웨이트트레이닝을 꾸준히 했다”며 “감독님 조언대로 천천히 끌어올릴 예정이다. 일단 17일 볼펜피칭을 다시 소화한 뒤 추후 일정을 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스로 꼽은 주무기는 슬라이더다. “파워피처가 아니기 때문에 제구가 중요하다. 볼넷을 허용하는 걸 매우 싫어한다”는 자기 소개도 곁들였다. 취재

진이 KBO리그 기준에선 속구 최고 150km의 수아레즈가 충분히 파워피처라고 하자 “반가운 얘기”라며 반색하기도 했다.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에서 수아레즈와 한솥밥을 먹었던 케이스 켈리의 존재는 든든할 수밖에 없다. 켈리는 “오픈 마인드로 한국의 문화나 정서에 마음을 열어야 한다”는 조언을 건넸다. 사령탑의 생각도 같았다. 은퇴 후 2007년부터 2년간 미국연수를 한 류 감독에게 ‘낯선 문화’는 익숙하다. 류 감독은 “결국 현지 적응을 잘해서 팀에 융합돼야 경기력이 나온다”며 “내가 말 한마디 먼저 걸고 농담이라도 던지는 게 수아레즈의 적

응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류 감독은 수아레즈의 합류 첫날 켈리와 함께 “우리 팀 스카우트 첫 조건은 외모”라고 너스레를 떨었다. 이를 들은 켈리도 적극적으로 고개를 끄덕였다든 후문이다.

LG의 올 시즌 목표는 ‘우승’이다. 수아레즈가 구단의 기대대로라면 천군만마다. 수아레즈는 “훌륭한 역사와 좋은 전력을 가진 팀에 입단했다는 자체가 영광이다. 이기는 팀에서 뛰며 승리하는 재미를 경험할 수 있을 것 같다. 올해 우리가 우승할 수 있길 바란다”는 말로 인터뷰를 마쳤다. 수아레즈의 어깨에는 자신의 각오와 팀의 목표가 맞닿아있다.

이천 | ing17@donga.com

이천에 뜬 ‘전설’ 선동열…영건들 데이트 살피며 칭찬 세례

고우석·이민호 등 매의 눈 관찰
데이터 근거로 “무브먼트 좋다”
고우석 “영광…조언 내용 비밀”

전설의 눈은 다르다. “좋은 투수다”라는 평범한 한마디에도 걸어진 길이 워낙 대단하기에 무게감이 실린다. 여기에 데이터까지 더해진다면 개인 권위 외의 근거까지 생긴다. 이천에 뜬 태양은 직판과 숫자를 통해 LG 트윈스 젊은 투수들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확인했다.

선동열 전 야구국가대표팀 감독(58)은 10일부터 이전 LG챔피언스파크를 방문했다. 설 연휴임에도 10~11일, 14~15일 등 4일간 야구장을 찾은 정도로 열정적이었다. 차명석 LG 단장은 젊

은 투수들에게 조언을 해주는 역할을 기대하며 선 전 감독을 초대했다. 선 전 감독은 고우석, 이민호, 이정용 등 LG를 대표하는 영건들의 볼펜피칭을 지켜보며 한 명 한 명에게 다양한 조언을 건넸다. 짧은 일정인 까닭에 메커니즘에 대한 이야기는 지양한다. 그 대신 자신감을 불어넣는 데 초점을 맞췄다. 선 전 감독은 류지현 LG 감독에게 “정말 좋은 젊은 투수들이 많다. 모두 중심이동이 잘 되며 무브먼트가 좋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선 전 감독의 말에서 주목할 점은 ‘무브먼트’다. 그는 볼펜피칭을 지켜보는 내내 노석기 LG 데이터분석팀장(50)과 함께했다. 랩소드, 트랙맨 등에서 나온 트레이킹 데이터를 살피며 투수들의 장단

점을 파악했다. 단지 육안으로 ‘볼끝이 좋아 보인다’는 말이 아닌, 숫자를 근거로 내린 호평이라 더욱 의미가 있다.

선 전 감독은 대표팀 지휘봉을 내려놓은 뒤 미국 메이저리그(ML)에서 유행하는 최신 데이터 연구에 매진했다. 자신이 배운 것을 연재한 칼럼의 깊이에 야구계 모두가 놀랐다. 류 감독은 14일 “젊은 투수들에게 칭찬을 많이 해주셨다. LG 투수들이 좋다는 말도 많이 하셨다”며 “지금 젊은 투수들이 어떻게 만들어나가야 우리 팀의 미래가 달려있다.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 내게도 큰 숙제”라고 강조했다.

LG 영건들에게도 선 전 감독의 경험에 분석이 더해진 조언은 피와 살이 될 터. 고우석은 “정말 영광”이라면서서도



선동열 전 야구국가대표팀 감독(왼쪽)이 14일 이전 LG챔피언스파크에서 김경태 LG 코치와 함께 투수들의 볼펜피칭을 지켜보고 있다. 김민성 기자

“조언 내용은 영업비밀”이라고 너스레를 떨었다. 이정용은 “아직 100%의 몸 상태가 아닌데도 칭찬을 많이 해주셨다. ‘지금처럼 꾸준히 페이스를 올리면 더 좋은 공으로 시즌을 치를 것’이라는 격려도 들었다. 국보급 투수에게 가르침을 받아 영광”이라고 밝혔다.

이천 | 최익래 기자

한화 “거제 캠프, 오키나와 부럽지 않아” 신축 하청스포츠타운 높은 만족도 날씨도 따뜻…“1차 훈련 성과 만족”

한화 이글스가 경남 거제에서 진행한 1차 스프링캠프를 14일 마무리했다. 한화는 1일부터 거제 하청스포츠타운에서 스프링캠프를 시작했다. 선수들은 2주간 체력, 기술훈련을 종합적으로 소화하며 새 시즌에 대비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10개 구단 모두 국내에 스프링캠프를 차린 가운데 한화는 거제를 택했다. 거제의 날씨는 낮 최고기온이 섭씨 14도를 웃도는 등 과거 스프링캠프지였던 일본 오키나와와 비교해도 부족함이 없었다. 전국



한화 선수단이 1일부터 거제 하청스포츠타운에서 진행한 1차 스프링캠프를 14일 마무리했다. 1차 캠프를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는 한화 선수단. 사진제공 | 한화 이글스

적인 비로 인해 실내훈련만 진행한 캠프 첫날을 제외하면 대체로 따뜻한 날씨 속에 실외훈련을 소화했다.

선수들 모두 시설 측면에서 높은 만족도를 표했다. 하청스포츠타운은 지난해 6월

준공된 신축구장으로 메인구장을 비롯해 볼펜과 보조구장 등을 갖추고 있다. 도보 약 5분 거리에 있는 하청야구장 2면까지 활용해 파트별 맞춤 훈련이 가능했다.

한화는 대전화성생명이글스파크에서 사

용하는 흙을 공수에 마운드와 1·3루 볼펜, 내야를 1군 구장 컨디션과 동일하게 만들었다. 구장관리팀 전문인력으로 거제에 상주하며 훈련 환경을 지속적으로 관리했다. 선수단 숙소로는 한화리조트 거제 벨버디어를 사용했다. 한화는 벨버디어의 협조로 피트니스센터를 선수단 실내훈련장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 카를로스 수베로 감독은 “거제 캠프를 시작하며 목표로 했던 선수 파악이 잘 이뤄져 만족스럽다. 우리 선수단 특유의 에너지 넘치는 분위기와 목적성을 가진 훈련 모습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화 선수단은 대전화성생명이글스파크로 이동해 16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2차 캠프를 진행한다. 장은성 기자 award@donga.com